

SEOUL MY SOUL
서울
한옥

2025
5.21WED
- 5.31SAT

북악과 응봉을 잇는 산줄기 사이
전통과 근대성이 살아 숨쉬는 서촌과 북촌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들이
지속적으로 합류하는 오늘날
도심 속 한옥에 드리운
초여름의 노을과 함께 저녁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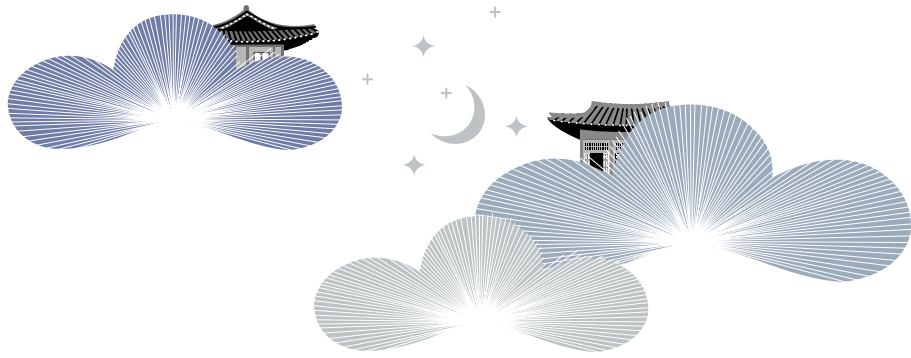
2025 공공한옥

밤마실

서울공공한옥 북촌문화센터 외 8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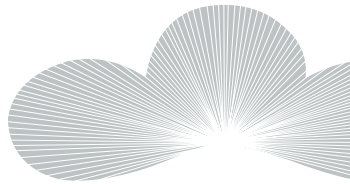
홍건익가옥, 배림가옥, 북촌라운지, 북촌한옥청, 북촌빈관, 북촌전통공예체험관, 북촌목공예공방, 전통홍염공방

문화다움
DaumSociety



2025 공공한옥 밤마실

일 정 2025. 5. 21.(수) - 5. 31.(토) *5. 26.(월) 휴관
장소·매체 서울공공한옥 북촌문화센터 외 8개소, 서·북촌 일대
 서울한옥포털 및 북촌문화센터 SNS
홈페이지 서울한옥포털 hanok.seoul.go.kr
문의 북촌문화센터 02) 741-1033



사전 예약 프로그램 신청

신청기간 : 2025. 5. 14.(수) - 5. 16.(금)까지
 프로그램별 정원의 2배수 선착순 마감 후 유니피커로 추첨
 ※ 선정자에게는 별도 문자 발송

신청방법 :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 > 한옥체험 > 체험신청 또는
 북촌문화센터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통해 예약



유의사항

- 한옥소목교실과 목기러기, 조족등 만들기를 제외하고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를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 현장 참여 프로그램의 경우 접수는 각 프로그램별 시작 시간 15분 전부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예약 프로그램의 경우, 당일 결원 발생 시 동일 적용)
- 기상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행사 기간 중 공간에 따라 연장 운영 시간이 다르며, 개별 한옥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5 PUBLIC HANOK NIGHT OUT

도심 속 한옥에 드리운 청명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초하(初夏)의 계절, 북촌문화센터를 포함한 서울공공한옥 9개소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5/21(수)부터 5/31(토)까지 열흘간 야간한옥을 일부 개방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마을의 옛길과 물길을 거닐며 지역민과 여행객, 남녀노소, 내외국인,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한옥문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인 단오를 앞두고, 무더위가 오기 전 초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저녁 나들이를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서·북촌은 매년 다양한 이슈와 관심을 동반하며 역사문화자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엔데믹과 함께 찾아온 한국문화에 대한 글로벌 수요와 정치적 시국의 변화, 지역 주민의 정주권 보호 등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과 각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공공한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들고나는 수많은 가치와 차이들을 포용하며, 색다른 한옥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한옥을 방문하는 다양한 세대가 우리 고유의 유산을 매개로 함께 나라를 펼치는 밤 나들이를 통해 공공한옥의 문화자원을 만끽하는 소중한 만남을 기대합니다.

1. 프로그램 구성

구분	프로그램명	진행·협력	장소	일정
전시	01 빛 스민 집 展	강현치·정성아 작가	북촌문화센터	5/21(수)~5/31(토)
	02 밤을 지키는 불빛 展	이승정 작가	북촌라운지	5/21(수)~5/31(토)
공연	03 몸짓	블랙토무용단	북촌문화센터	5/24(토)
	04 단오풍정(端午風情)	서의철 가단, 안순열, 김연택,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북촌한옥청	5/31(토)
	05 북촌마을여행 : 도채비 기행	프로젝트 어린, 코몬 상상화생, 북촌빈관 by 락고재	북촌일대	5/30(금), 5/31(토)
	06 책 읽는 밤	박초연	홍건익가옥	5/30(금)
여행·탐방	07 조용한 여행 캠페인 : 사운드 워크숍 '수집된 물질들'	김준 작가	북촌일대	5/24(토), 5/31(토)
	08 북촌골목길여행 一 : 공공한옥 마실	송경화 주민해설사, 전통홍염공방, 성모자재북지관	북촌일대	5/24(토), 5/29(목)
	09 북촌골목길여행 二 : 영화 속 북촌	육선희 주민해설사	북촌일대	5/23(금), 5/30(금)
체험·해설	10 한옥소목교실 : 호족반 만들기	이혜숙	북촌문화센터	5/24(토), 5/31(토)
	11 조족지광(照足之光)	백창호, 청년재단	북촌문화센터	5/21(수), 5/28(수)
	12 목기러기와 누비보	신민웅, 이정란, 성북구치매안심센터	북촌문화센터	5/22(목), 5/29(목)
	13 한옥의 밤, 호롱불 대화	차차티클럽	북촌라운지	5/23(금)
	14 대청마루 요가교실	정아름, 이소연	배림가옥	5/21(수), 5/28(수)
	15 계절을 걷는 밤	이동숙	홍건익가옥	5/24(토)
	16 낯선 공간에서의 단상	이루미, 한완정	배림가옥	5/22(목), 5/29(목)
	17 일일서재	-	배림가옥	5/23(금), 5/30(금)
	18 한옥아 놀자	김성선·조승현 해설사	북촌문화센터	5/24(토), 5/31(토)
19 한옥의 저녁	조승현 해설사	북촌문화센터	5/25(일), 5/27(화)	
교류·이벤트	20 공공한옥 네트워킹 : 심과 환대의 공간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프라우들리(주), 차차티클럽	북촌라운지, 배림가옥	5/22(목)
	21 북촌전통공예체험이벤트	북촌전통공방협의회, 종로구 관광체육과	북촌전통공예체험관	5/23(금), 5/24(토) 5/30(금), 5/31(토)
	22 달빛 아래 한옥 산책 : 서울공공한옥 방문 이벤트	-	북촌라운지, 배림가옥, 북촌문화센터	5/23(금), 5/24(토) 5/30(금), 5/31(토)

※ 위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사항은 기상예보 및 대내외 요인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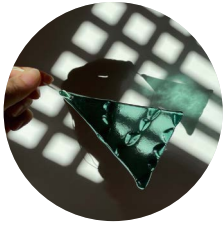
2. 프로그램 일정표

일시	10:30	11:30	12:30	13:30	14:30	15:30	16:30	17:30	18:30	19:30	20:30	21:30
21(수)~31(토)	빛 스민 집 展									밤을 지키는 불빛 展		
21(수)					대청마루 요가교실 1			대청마루 요가교실 2	조족지광 1			
22(목)	공공한옥 네트워킹								목기러기와 누비보 1			
23(금)			북촌전통공예체험이벤트 1						북촌골목길여행 二 : 영화 속 북촌 1		낯선 공간에서의 단상 1	
24(토)	한옥아 놀자 1			한옥소목교실 : 호족반 만들기 1				서울공공한옥 방문 이벤트 1	몸짓	몸짓		
25(일)								사운드 워크숍 1	계절을 걷는 밤			한옥의 저녁 1
27(화)								서울공공한옥 방문 이벤트 2				한옥의 저녁 2
28(수)							대청마루 요가교실 3		조족지광 2			
29(목)									북촌골목길여행 一 : 공공한옥 마실 2			낯선 공간에서의 단상 2
30(금)			북촌전통공예체험이벤트 3			목기러기와 누비보 2	도채비 기행 1		북촌골목길여행 二 : 영화 속 북촌 2	책 읽는 밤		
31(토)	한옥아 놀자 2				한옥소목교실 : 호족반 만들기 2			서울공공한옥 방문 이벤트 3				
					단오풍정 1		단오풍정 2				사운드 워크숍 2	
						도채비 기행 2					북촌전통공예체험이벤트 4	서울공공한옥 방문 이벤트 4

※ 위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사항은 기상예보 및 대내외 요인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三. 프로그램 세부내용

01. 전시 빛스민 집展



재료의 물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통과 현대, 자연과 인공, 낮과 밤이 교차하는 찰나의 순간을 각각 다르게 포착하는 두 작가의 전시. 빛과 유리, 픽셀 요소로 조형된 세라믹 조명이 백년한옥의 낮과 밤을 물들인다. 강현지 작가는 색유리 공예를 활용해 햇빛을 머금은 재료의 서정성을 탐구하고, 정성이 작가는 디지털 픽셀을 도자에 접목해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새로운 오브제를 창조한다. 이들의 작품은 한옥의 건축적 구조와 조응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빛의 결을 섬세하게 담아낸다. <빛스민 집>은 한옥이라는 공간 안에서 낮과 밤,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관람자에게 시간이 켜켜이 쌓인 오늘날의 가옥 풍경을 더욱 생경하게 발현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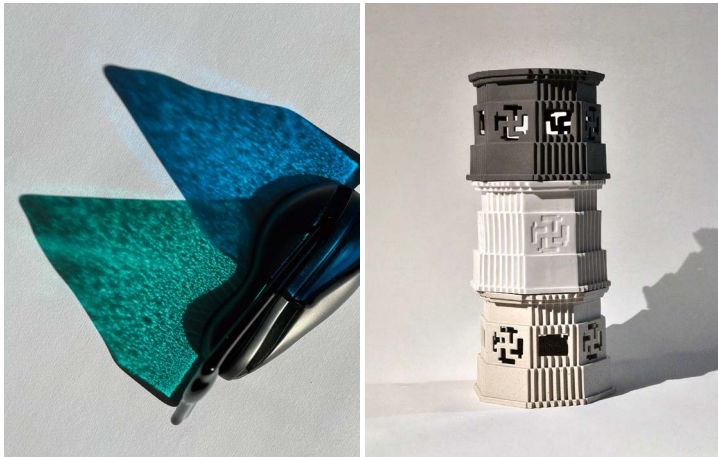
- ☉ 참여 작가 : 강현지, 정성아
- ☉ 일시 : 5/21(수)~5/31(토) 10:00~19:00
- ☉ 장소 : 북촌문화센터

02. 전시 밤을 지키는 불빛展



계동길 골목에 자리한 북촌라운지는 해가 지면 더욱 아늑해진다. 대문을 들어서면 문밖 세계와 결이 다른 고요한 한옥이 모습을 드러내고, 전통차 향이 은은하게 배어든 공간에 유리공예 작가 이승정의 호롱들이 밤의 어둠을 밝힌다. 입김으로 불어 만든 유리에는 모두 다른 숨의 결이 새겨져 있고, 공간에 옮겨진 불빛들은 윤슬처럼 반짝인다. 한옥을 찾은 이들의 발치에 빛을 비추주는 봄밤의 전시

- ☉ 참여 작가 : 이승정 (마버글라스)
- ☉ 일시 : 5/21(수)~5/31(토) 18:00~21:00
- ☉ 장소 : 북촌라운지



03. 공연 몸짓

‘블랙’이라는 주제로 안무와 연출 작업을 통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새로운 발레를 선보이며 무용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블랙토무용단. 눈길을 사로잡는 강렬한 무용이 낮과 밤의 경계에서 펼쳐진다. 블랙토만의 독보적이고 섬세한 움직임 속에 담긴 한국적 고유성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퍼포먼스로 풀어내는 ‘한국적인 발레’. 고즈넉한 한옥을 배경으로 손짓과 몸짓, 음악이 그리는 서사와 교감

- ☉ 진행·협력 : 블랙토무용단 (이루다, 정민찬, 이루마, 이소희)
- ☉ 일시 : 5/24(토) 17:00~17:20, 19:00~19:20 (20분)
- ☉ 장소 : 북촌문화센터



04. 공연 단오풍정(端午風情)

서·북촌은 예로부터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북촌에서는 선비들의 다양한 ‘시사(詩社)’ 활동으로, 한양 최고의 풍류 명소로 알려져 있다. 따뜻한 기운이 돌고 생동감이 넘치는 초하(初夏)의 날, 문학과 풍류를 주도하고 시대를 반영하는 음악을 창작하는 가단(歌壇)과 함께 아름다운 오늘날의 단오풍정(端午風情)을 자아내는 자리. 평화롭고 물이 맑은 산자락의 옛적 풍류를 모티브로 예인(藝人)들과 고즈넉한 한옥에 모여 즐거운 신선놀음을 만끽하는 시간

- ☉ 진행·협력 : 서의철 (소리), 남정훈 (피리), 김동인 (대금), 남성훈 (아쟁), 김명준 (장고), 율파 안순열 (서예), 김연택,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 ☉ 일시 : 5/31(토) 14:00~15:00, 16:00~17:00 (60분)
- ☉ 장소 : 북촌한옥청
- ☉ 대상 : 14:00~15:00 - 풍류방 문화에 관심 있는 만 8세 이상 방문객 20명 (일부 사전 예약)
16:00~17:00 -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유학생 초청자 20명 (단체 예약)



05. 공연 북촌마을여행 : 도깨비 기행

기이한 불꽃을 발현하고 사라지는 도깨비불에 홀린 듯 북촌 곳곳의 기묘한 장소들을 누비는 여행. 옛사람들의 생각과 소망, 터부 등 오늘날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퍼포먼스를 통해 여행객들을 유도하는 프로젝트 어린. 일상 속 망각되어 있던 상징들과 더불어 옛이야기들을 담아내는 코몬 상상화씨의 글을 토대로 현대예술과 색다른 재미를 만끽하는 시간

- ☉ 진행·협력 : 프로젝트 어린 (이어진, 류견진), 코몬 상상화씨 (정상화), 북촌빈관 by 락고재
- ☉ 일시 : 5/30(금), 5/31(토) 15:00~16:30 (90분)
- ☉ 동선 : 기전석 - 성제정 - 칠보사 - 우물길정원 - 코리아 목욕탕 - 북촌로 11길 - 북촌빈관 by 락고재
- ☉ 대상 : 90분 이상 도보여행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방문객 30명 (날짜별 15명 / 사전 예약)





06. 공연 책 읽는 밤

서촌에 위치한 흥건익가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한옥이자 즐거운 일상 속 휴식처로, 밤마실 기간 동안 다양한 주제로 특별한 한옥의 밤 시간을 채운다. 한옥 대청에 둘러앉아 생동감 넘치는 동화 구연으로 읽어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상상력을 키워보는 시간

- ⊗ 진행·협력 : 박초연 (성우)
- ⊗ 일시 : 5/30(금) 18:00~19:00 (60분)
- ⊗ 장소 : 흥건익가옥
- ⊗ 대상 : 한옥과 동화 구연에 관심 있는 만 12세 이하 방문객 15명 (사전 예약)

07. 여행·탐방 조용한 여행 캠페인 : 사운드 워크숍 '수집된 물질들'

한 지역, 장소의 소리를 다각도로 파악하는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소리풍경). 소리는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며, 지역문화와 일상에 깊은 영향을 준다. 다년간 사운드스케이프 기반 예술 창작 활동을 해온 김준 작가의 작업과 함께 진행하는 조용한 여행 워크숍. 물성이 불분명한 소리를 채집해보고 예술창작을 통한 실험적 표현 방법을 살펴보면서 자연과 일상의 소리, 그리고 북촌이 가진 과잉 관광 이슈를 낯선 감각을 통해 들여다보는 시간

- ⊗ 진행·협력 : 김준 작가
- ⊗ 일시 : 5/24(토), 5/31(토) 17:30~19:30 (120분)
- ⊗ 장소 : 북촌문화센터 및 북촌일대
- ⊗ 대상 : 90분 이상 도보여행이 가능한 친구, 가족, 연인 등 2~4명의 구성원 10팀 (날짜별 5팀 / 사전 예약)

08. 여행·탐방 북촌골목길여행 一 : 공공한옥 마실

북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골목을 거닐며 다양하게 개방되어 있는 한옥 공간별 문화콘텐츠와 북촌의 이야기를 전한다. 운치 있고 아름다운 북촌의 공공한옥을 살펴보고, 그 안에 자리한 오늘날의 전통을 누구나 함께 만끽하는 동행의 시간

- ⊗ 진행·협력 : 송경화 주민해설사, 김경열 (전통홍염공방), 성모자애복지관
- ⊗ 일시 : 5/24(토) 16:30~18:30, 5/29(목) 15:00~17:00 (120분)
- ⊗ 장소 : 북촌문화센터 및 북촌일대
- ⊗ 대상 : 5/24(토) - 120분 이상 도보여행이 가능한 만 13세 이상 방문객 10명 (사전 예약)
5/29(목) - 성모자애복지관 초청자 10명 (단체 예약)



09. 여행·탐방 북촌골목길여행 二 : 영화 속 북촌

한옥과 돌담길이 이어진 북촌의 운치와 함께 즐겨보는 영화 이야기.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사랑받는 우리 영화와 드라마 속 장소들을 찾아가 보는 시간. 주민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북촌 곳곳에 남아있는 영화 속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장소가 지닌 다채로운 무대의 이야기를 알아보는 여행

- ⊗ 진행·협력 : 옥선희 주민해설사
- ⊗ 일시 : 5/23(금), 5/30(금) 18:00~20:00 (120분)
- ⊗ 동선 : 북촌문화센터 - 계동길 - 락고재 - 백인제가옥 - 정독도서관 - 감고당길 - 윤보선길 - 북촌문화센터
- ⊗ 대상 : 90분 이상 도보여행이 가능한 만 13세 이상 방문객 20명 (날짜별 10명 / 사전 예약)

10. 체험·해설 한옥소목교실 : 호족반 만들기

음식을 올려놓는 밥상 또는 쟁반, 책을 올려놓으면 책상이 되는 여러 기능을 한꺼번에 지닌 소반은 좌식문화의 대표적 산물이다. 한국 고유의 생활문화를 상징하는 반(盤)의 한 종류인 호족반은 호랑이의 용맹하고 당당한 풍채와 매끈한 곡선을 형상화한 다리가 수려하다. 우리네 수호신을 담아낸 나만의 호족반(32x32x29cm)을 만들어보며 한옥생활문화와 소목 공예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 ⊗ 진행·협력 : 이혜숙 (춘소반연구회)
- ⊗ 일시 : 5/24(토), 5/31(토) 13:00~16:00 (180분)
- ⊗ 장소 : 북촌문화센터
- ⊗ 대상 : 소목교실 2회차에 모두 참여가 가능한 만 15세 이상 방문객 20명 (사전 예약)
- ⊗ 참가비 : 3만원

11. 체험·해설 조족지광(照足之光)

전기와 가로등이 없던 시절, 밤길을 걷던 행인들이 들고 다니던 조족등은 발등과 발치를 비춘다 하여 '조족(照足)'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주로 궁중의 빈전이나 순라군이 야경(夜警)을 돌 때 사용된 이 전통 조명은, 선조들의 지혜와 야간 생활 양식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다. 한국전통등연구원에서는 우리 고유의 재치가 깃든 한지등 공예를 선보이며 방문객들이 직접 조족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나만의 조족등을 만들어보고, 야간 한옥과 창덕궁길을 거닐며 조용한 해설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 ⊗ 진행·협력 : 백창호 (한국전통등연구원), 류보람 해설사, 청년재단
- ⊗ 일시 : 5/21(수), 5/28(수) 17:30 ~ 19:30 (120분)
- ⊗ 장소 : 북촌문화센터 외 창덕궁길 일대
- ⊗ 대상 : 5/21(수) - 청년재단 '이음사업' 초청자 14명 (단체 예약)
5/28(수) - 전통공예체험 및 야행에 관심 있는 만 15세 이상 방문객 14명 (사전 예약)
- ⊗ 참가비 : 1.5만원





12. 체험·해설 목기러기와 누비보

조선시대 전통 혼례에 사용했던 목안(木雁)은 마을에서 마련해 오복(五福)을 모두 갖춘 집에서 관리했던 중요한 공동체적 자산이었다. 예로부터 아들을 둔 집에서 기러기를 길러 전안례 때 신부에게 전달하던 풍습이 목기러기를 선물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신랑 신부의 백년해로와 신의를 상징한다. 소중한 이들을 위해 수복강녕을 기원하며, 우리네 전통 길조(3x12x7cm)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

- ☉ 진행·협력 : 신민웅 (북촌목공예공방), 이정란 (북촌문화강좌 규방공예), 성북구치매안심센터
- ☉ 일시 : 5/22(목) 17:30~20:00 (150분), 5/29(목) 14:30~16:00 (90분)
- ☉ 장소 : 북촌문화센터
- ☉ 대상 : 5/22(목) - 전통 목안(木雁)에 관심 있는 만 13세 이상 방문객 12명 (사전 예약)
5/29(목) - 성북구치매안심센터 초청자 14명 (단체 예약)
- ☉ 참가비 : 1만원



13. 체험·해설 한옥의 밤, 호롱불 다회

북촌라운지는 여행객들을 위한 컨시어지 역할을 하는 공공한옥으로 일상과 문화를 담아 방문객을 맞이한다. 북촌 곳곳에 방치된 한옥을 재생시키며 아름다운 공간을 가꾸고 있는 프라우드리와 매일 '차' 한 잔을 통해 우리의 삶이 '차차'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차차티클럽이 함께 마련한 한옥 공간에서의 달빛과 호롱불 아래 봄바다 회(茶會). 요차를 시음해 보고 명상과 함께 직접 차를 우려보는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

- ☉ 진행·협력 : 이현재 (차차티클럽), 프라우드리(주)
- ☉ 일시 : 5/23(금) 19:00~20:30 (90분) ☉ 장소 : 북촌라운지
- ☉ 대상 : 한옥의 정취와 다도에 관심 있는 만 15세 이상 방문객 8명 (사전 예약)



14. 체험·해설 대청마루 요가교실

예술가의 집 배령가옥에서 낮과 밤의 요가교실을 마련한다. 고요한 한옥의 안채에서 내 안의 평안과 휴식을 찾아본다. 21일(수)에는 아기와 함께하는 요가를, 28일(수)에는 울려 퍼지는 싱잉볼 소리에 맞춰 사운드 테라피 요가를 만날 수 있다. 요가와 명상, 차담(茶啖)을 통해 일상 속 침을 찾으며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 ☉ 진행·협력 : 정아름 (아쉬탕가제이요가), 이소연 (청청청요가)
- ☉ 일시 : 5/21(수) 14:00~16:00, 17:00~19:00 (120분)
5/28(수) 15:30~17:30, 19:00~21:00 (120분)
- ☉ 장소 : 배령가옥
- ☉ 대상 : 5/21(수) - 14:00~16:00 15개월 이하 아기와 함께하는 명상에 관심 있는 방문객 7명 (사전 예약)
17:00~19:00 16~36개월 아기와 함께하는 명상에 관심 있는 방문객 7명 (사전 예약)
5/28(수) - 일상 속 침이 필요한 방문객 14명 (회차별 7명 / 사전 예약)
- ☉ 준비물 : 편안한 복장, 개인 손수건, 베이비 오일 또는 로션 (아기와 함께하는 명상 요가)

15. 체험·해설 계절을 걷는 밤

방문객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서촌의 홍건익가옥에서 햇살이 따뜻해지고, 만물이 자라나는 여덟 번째 절기 '소만'을 맞아 특별한 한옥의 밤이 펼쳐진다. 고즈넉한 저녁 홍건익가옥 마당에 모여 모종을 심어보며 우리의 전통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

- ☉ 진행·협력 : 이동숙 (속인화가)
- ☉ 일시 : 5/24(토) 18:00~18:30, 18:30~19:00, 19:00~19:30 (30분)
- ☉ 장소 : 홍건익가옥
- ☉ 대상 : 한옥과 식물, 절기에 관심 있는 만 12세 이하 방문객 15명 (회차별 5명 / 사전 예약)



16. 체험·해설 낮선 공간에서의 단상

예술가의 집 배령가옥에서 글을 쓰는 모임을 마련한다. 고요한 한옥의 밤, 소설가, 음악가 등 여러 분야에서 글을 다루는 전문가들과 함께 주제와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공간에 대한 단상을 글로 남겨본다. 22일(목)에는 음악, 29일(목)에는 한옥의 감각을 주제로 펼쳐지며, 탄생한 글은 추후 한 권의 기록집으로 엮일 예정이다. 대담과 글쓰기, 합평회를 통해 나와 공간 그리고 도시를 생각해 보는 시간

- ☉ 진행·협력 : 이루미 (피아니스트), 한완정 (작가)
- ☉ 일시 : 5/22(목), 5/29(목) 19:30~22:00 (150분) ☉ 장소 : 배령가옥
- ☉ 대상 : 5/22(목) - 음악을 소재로 한옥의 정취에 대한 단상을 글로 남겨보고 싶은 방문객 6명 (사전 예약)
5/29(목) - 한옥의 감각을 소재로 공간에 대한 단상을 글로 남겨보고 싶은 방문객 6명 (사전 예약)



17. 체험·해설 일일서재

예술가의 집 배령가옥을 일일서재로 만난다. 정해진 시간 동안 머물며 자유롭게 책을 읽고 마음에 남는 글귀를 필사할 수 있으며, 음료와 간단한 다과도 반입이 가능하다. 고즈넉한 한옥에서의 하루를 온전히 느껴보는 시간

- ☉ 진행·협력 : 배령가옥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 ☉ 일시 : 5/23(금), 5/30(금) 10:00~20:00 (자유 입·퇴장 가능) ☉ 장소 : 배령가옥
- ☉ 대상 : 한옥에서의 하루를 온전히 느껴보고 싶은 방문객 6명 (날짜별 3명 / 사전 예약)



18. 체험·해설 한옥아 놀자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보는 한옥 이야기! 한옥 용어, 구조에 대해 배우고 한옥의 주재료를 직접 만져보며 문화적, 생활사적 의미를 체득해보는 어린이 대상 특별해설 프로그램. 해설 끝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만의 특별한 과자 한옥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 ☉ 진행·협력 : 김성선 · 조승현 해설사
- ☉ 일시 : 5/24(토), 5/31(토) 10:30~12:00 (90분) ☉ 장소 : 북촌문화센터
- ☉ 대상 : 초등학교 취학연령 어린이 16명 (날짜별 8명 / 사전 예약)





19. 체험·해설 **한옥의 저녁**

봄밤, 고즈넉한 전통 한옥에서 아름다운 전통 한옥을 감상할 수 있는 해설 프로그램. 축제 기간 중 야간 한옥을 개방하여 상주해설사가 들려주는 100년 가옥의 이야기와 생활 문화. 공공한옥 밤마실을 맞이하여 특별히 마련한 한방차와 다과를 시음하고, 은은한 불빛을 밝히며 도심 속 아름다운 한옥의 저녁을 만끽하는 시간

- 📍 진행·협력 : 조승현 해설사
- 📍 일시 : 5/25(일), 5/27(화) 19:00~19:50 (50분)
- 📍 장소 : 북촌문화센터
- 📍 대상 : 북촌과 한옥에 관심 있는 만 13세 이상 방문객 20명 (날짜별 10명 / 사전 예약)

20. 교류·이벤트 **공공한옥 네트워킹 : 삶과 환대의 공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서울공공한옥의 가치 확산과 운영자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 우리나라 최초의 영상민속학자인 송석하 선생과 수목화가 제당 배림 선생이 살았던 배림가옥은 오늘날 근대인물들의 삶과 정신을 담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북촌라운지는 관광객들을 위한 컨시어지 역할을 하는 공공한옥으로, 일상과 문화를 담아 다채로운 음정류와 한옥에서의 온전한 심을 제공하며 방문객을 맞이한다. 한옥건축자산을 기반으로 복합문화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살펴보고, 공공한옥의 가치와 지평을 넓히는 시간

- 📍 진행·협력 : 김정현 교수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소진 이사 (프라우들리(주)), 이현재 대표 (차차티클럽)
- 📍 일시 : 5/22(목) 11:00~12:30 (90분)
- 📍 장소 : 배림가옥, 북촌라운지
- 📍 대상 : 서울공공한옥 관계자

21. 교류·이벤트 **북촌전통공예체험이벤트**



공공한옥 행사주관을 맞이하여 북촌문화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 축제 기간 중 4일 동안 공예품 만들기 체험권을 일일 선착순 10명씩 배부한다. 간단한 SNS 팔로우 미션 후 취득한 체험권을 가지고 30분 이내에 북촌전통공예 체험관에 도착하면 한지, 도자, 끈 등을 활용한 공예 체험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전통의 맛을 즐기고 특별한 추억을 쌓아 보는 시간

- 📍 진행·협력 : 북촌전통공방협의회, 종로구 관광체육과
- 📍 일시 : 5/23(금), 5/24(토), 5/30(금), 5/31(토) 12:00~16:00 (체험별 약 40분 내외)
- 📍 장소 : 북촌전통공예체험관
- 📍 대상 : 전통공예에 관심 있는 국내·외 방문객 40명 (날짜별 선착순 10명 / 만 8세 이하 보호자 동반)



달빛 아래 한옥 산책

서울공공한옥 방문 이벤트

서울공공한옥은 국내·외 방문객들이 한옥건축자산의 가치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한옥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표시된 공공한옥을 방문하여 공간별 특징을 담은 도장을 찍어주세요!

방문이벤트 미션을 완료하면 소중한 우리 문화를 담은 공공한옥 기념품을 증정해 드립니다.

5/23(금), 5/24(토), 5/30(금), 5/31(토) 4일간 17:00~20:00 / 일일 선착순 10명

*기념품 교부 장소 : 북촌문화센터 입구

1	2	 북촌라운지
3	 북촌문화센터	4
 배림가옥	5	6

이벤트 참여 방법

1. 도장이 비치된 공공한옥 2곳 이상 방문해 도장 찍기
2. ①~⑥에 적힌 촬영 미션을 선택하여 빙고 두 줄 이상을 완성하기

촬영 미션

- | | |
|------------------------|--------------------------|
| ① 북촌문화센터 '빛 스민 집' 관람하기 | ② 북촌의 하늘을 배경으로 손가락 하트하기 |
| ③ 배림가옥 '나노미터의 기억' 관람하기 | ④ 밤마실 OOTD(오늘의 옷차림) 인증하기 |
| ⑤ 북촌라운지에서 한옥의 운치 즐기기 | ⑥ 서울공공한옥의 예쁜 풍경 감상하기 |

(북촌문화센터 계정 및 해시태그 @bukchon_culture_center #공공한옥밤마실 #서울공공한옥 필수)

3. 완성된 두 줄의 빙고를 북촌문화센터 입구에서 확인받고 기념품 수령



